

Working Paper 2012 - 1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서 유 정)

2012.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서 유 정¹⁾

< 목 차 >

| | |
|-------------------------|----|
| I. 학생 맞춤형 교육의 배경 | 1 |
| II. 영국 맞춤형 교육의 현황 | 3 |
| III. 종합과 시사점 | 14 |
| 참고문헌 | 16 |

연구의 개요

- 진로교육이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강조하는 반면, 국내의 교육은 여전히 획일화된 형태로 운영되어 진로교육의 목적과 상충되고 있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나 적성과는 관련 없는 많은 교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문과와 이과의 선택 외에는 학생의 선택이 교과 교육에 반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진로교육 역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활동을 하는 형태가 많으며, 심지어 체험형의 진로교육인 학생직업체험 조차도 학생의 선호 직업군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 단위 혹은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여러 선진국에서는 교과교육에서부터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학생의 선택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의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그 중 영국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주제어: 진로교육, 영국, 학생 맞춤형 교육, 산학연계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nad08doc@krivet.re.kr)

I. 학생 맞춤형 교육의 배경

현재 영국은 '모든 아이들은 중요하다 (Every Child Matters)'의 정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맞춤형 교육의 배경은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삼부 시스템(Tripartite Syste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부시스템은 만 11세 이상의 학생에게 11 플러스 시험(11 Plus Exam)²⁾을 적용하여 성적에 따라 인문계(grammar school), 전문실업계(secondary technical school), 단순 실업계(secondary modern school)의 세 분류로 학생의 진로를 구분하는 시스템이다. 각 분야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학생이 가진 소질에 따라 교육을 하고자 시작된 제도였다. 삼부 시스템과 11 플러스 시험의 시작에는 지능 발달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시릴 버트 경(Sir Cyril Burt)³⁾의 영향이 컸다. 아동은 각자 제각각의 능력을 타고나며 타고나는 능력과 필요로 하게 되는 학습의 종류는 시험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버트(Burt), 1972). 또한 각각의 능력은 그에 맞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삼부 시스템의 구축에 한 몫을 하였다(브레이스(Brace), 2005).

1944년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삼부 시스템은 약 30여 년간 영국 전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명문 인문계 중등학교 입학에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중상류층 학생이 하류층 학생보다 인문계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샘슨(Sampson), 1965). 삼부 시스템으로 인해 계층 간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삼부 시스템은 1976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단되었다. 또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교육이 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삼부 시스템이 활용될 때의 교육 철학, 즉 학생의 적성에 따라 맞춤형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 실용적인 직업기술에 소질 있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인문계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생 맞춤형의 교육이 운영되고

2) 11 Plus Exam: 만 11세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학력 시험

3) 시릴 버트 경(1883-1971): 영국 교육계에 큰 영향을 준 심리학자 중 하나로 지능의 유전적 영향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1 플러스 시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하였으며, 멘사 조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의 사후, 그가 남긴 연구 결과에 대해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발표한 연구 내용 중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학생들의 선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학생들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Key Stage 4 단계에서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 과정으로 정규 교과를 대체할 수도 있다. 학생이 중등단계에서 선택한 과목이나 자격 과정은 고등교육 진학은 물론, 취업 분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진로의 탐색과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의 영국에서도 인문계 교육이 직업교육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 적도 있었으나(샘슨, 1965), 학생 맞춤형 교육의 철학은 인문계 교육과 직업교육의 가치가 동등함을 강조함으로써 두 분야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보다 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에 더욱 큰 가치를 둠으로써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급여와 대우의 차이를 줄이기도 하였다. 각 직업별 연봉을 비교하였을 때, 고학력이 필요한 직업과 기술직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참조).

<표 1> 고학력직과 기술직의 연봉 비교 (단위 파운드)

| 고학력직 | | 기술직 | |
|---------------|--------|--------|--------|
| 직업명 | 연봉 | 직업명 | 연봉 |
| 의사(일반의) | 48,775 | 전기기사 | 43,772 |
| 법조인 | 44,552 | 기관사 | 42,527 |
| 대학 교수 및 전임 강사 | 42,263 | 광부 | 41,140 |
| 이공계 과학자 | 36,687 | 자동차정비사 | 39,142 |

출처: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2011)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영국의 학력별 시급의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의 수치를 보면 자칫 학력별 시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학력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응답자의 재직기간이나 종사하는 산업 분야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각 학력별 시급의 차이는 통계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학력별 시급의 차이⁴⁾

4) <표 1>의 통계에서 시급 중간값이 학력별로 최대 두배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CSE와 학위 소지자의 비교). 그러나 학위 소지자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본 통계가 근무년 수 (tenure)와 풀타임/파트타임 근무자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별 시급의 차이는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서유정)

| | 1993 | | 2010 | |
|--------------------|--------|--------------------|--------|--------------------|
| | 시급 중간값 | A-level과의 급여 차이(%) | 시급 중간값 | A-level과의 급여 차이(%) |
| 학위 소지자 | 10.29 | 165% | 16.1 | 161% |
| 전문 직업교육 | 8.13 | 130% | 12.6 | 126% |
| A Level | 6.25 | 100% | 10 | 100% |
| GCSE ⁵⁾ | 5.29 | 85% | 8.68 | 87% |

출처: Labour Force Survey (1993, 2010)

즉, 단지 교육에 있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 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자유롭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영국의 학생들은 다수가 직업교육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간 대학 졸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33% 정도의 학생만이 대학 학위를 받으며(여학생 약 40%, 남학생 약 30%), 남은 67%의 학생들은 중등 과정에서 교육을 중단하거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을 준비한다(OECD, 2010). 취업 후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으며, 다시 학력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성적에 현장에서의 경력을 더하여 입학할 허가받는다. 경력과 학력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선취업 후진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II. 영국 맞춤형 교육의 현황

1. 정규 교육 과정의 맞춤형 교육

영국 맞춤형 교육의 철학은 정규 교육과정(일반 교과 영역과 직업교육 과정 포함)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소질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의 교육은 중등 과정 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Key Stage 4와 Sixthform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진로교육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 중등 과정 안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영국의 교육과정이 진로교육에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진로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 교육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 감소할 것이다.

5)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만 14-16세에 공부하는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서유정)

영국의 학교 교육은 교육부(DfE: Department for Education)와 사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관할이고, 교육 정책을 국공립학교에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총 17,361개의 초등학교(학생 4,107,680명)와 3,343개의 중등학교(학생 3,268,490명)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DCSF, 2007). 영국의 교육 체계는 국내의 6-3-3(초·중·고) 제도와는 달리 초등학교(primary) 6년, 중학교(secondary) 5년, 고등학교(sixthform) 2년을 포함하여 6-5-2 구조의 형태를 갖는다 (<표 3> 참조).

영국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중등 과정이다. 중등 과정은 5년간의 중학교 과정과 2년간의 중학교 이후 과정(Sixthform)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1년까지는 중학교 과정까지가 의무 교육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중학교 이후 과정도 의무 교육에 포함되고 있다. 중학교 과정과 중학교 이후 과정 모두 국가고시를 통해 평가받으며, 각 과목의 성적에 따라 자격증을 받아 학교 졸업장을 대신한다.

<표 3> 영국의 초·중·등 단계 정규 교과과정

| 입학연령 (만) | 학년 | 평가 방법 | 교육 과정 | 학교 | |
|----------|-------------------|---------------------------------|---|---|----------------|
| 3 | 탁아소 | | 기초 | 유아원 | |
| 4 | 학교 준비 (Reception) | | | Infant School | 초등학교 (Primary) |
| 5 | 1 | | Key Stage 1 | | |
| 6 | 2 | SATs ⁶⁾ (영어, 수학, 과학) | | Junior School | |
| 7 | 3 | | Key Stage 2 | | |
| 8 | 4 | | | | |
| 9 | 5 | | | | |
| 10 | 6 | SATs(영어, 수학, 과학) | Key Stage 3 | 중학교 (Secondary) | |
| 11 | 7 | 교사 평가 | | | |
| 12 | 8 | | | Sixthform ⁷⁾ / 컬리지 ⁸⁾ (College) | 중등학교 |
| 13 | 9 | | | | |
| 14 | 10 | GCSEs | Key Stage 4/GCSE | | |
| 15 | 11 | GCSEs 또는 다른 국가자격증 | Foundation Diploma Higher Diploma | | |
| 16 | 12 | AS levels 또는 다른 국가자격증 | Sixthform/A level Foundation Diploma | | |
| 17 | 13 | A levels 또는 다른 국가자격증 | Higher Diploma Advanced Diploma | | |

인용: <http://www.employers-guide.org/>

6) SATs(Standard Assessment Tests):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초등 단계의 학력 평가.

7) Sixthform: 만 16-18세까지의 A level 혹은 직업기술을 공부하는 과정, 또는 그 학생들.

8) 컬리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문계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가.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은 Key Stage 3⁹⁾와 Key Stage 4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Key Stage 3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는 미술과 디자인, 시민의식, 디자인과 기술, 영어, 지리, 역사, 정보통신기술, 수학, 외국어, 음악, 체육, 과학, 진로교육, 성교육, 종교 교육이다. 선택 과목에는 경제적 건강과 금융능력 (Economic wellbeing and financial capability), 개인·사회·건강교육, 개인 건강 등을 포함한다.

Key Stage 4에 해당하는 교과과목은 시민 의식, 영어, 정보통신기술, 수학, 체육, 과학이다. 또한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성교육, 종교 교육, 기초직업학습(work-related learning)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과목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포함한 소수의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그 외의 과목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수한다. 정규 교과목 대신 전문직업자격증을 위한 기본 과정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때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최소 다섯 과목에서 열 개 이상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흔히 수준 높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열 개 이상의 과목을 학습하며, 그 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더 적은 수의 과목을 학습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므로 학생은 무리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부터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진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그와 관련 있는 교과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도중에 관련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국가고시인 일반중등교육자격증(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치러 각 과목별로 자격증을 받게 된다.

나. 중학교 이후 과정

만 16세에 치르게 되는 GCSE 시험은 의무 교육의 끝을 의미한다. 이후의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인문계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계를 Sixthform 과정이라고 하며, 이 단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

9) Key Stage 3와 Key Stage 4, A level, AS level은 번역할 경우 의미가 모호해지는 관계로 영어표현 그대로 활용함.

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 A level, 직업자격증, 전문직업자격증). 그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인문계 과정을 A level이라고 한다.

1) A level

A level은 과정은 GCSE 시험을 마친 후, 2년간 진행된다. A level의 한 과목은 총 네 개에서 여섯 개의 단위(module)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단위에서 요구되는 시험과 수행평가에 모두 합격점을 받은 경우, 하나의 A level 자격증을 받게 된다. 절반에 해당하는 두 개에서 세 개의 단위만을 이수하고 합격점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AS Level(Advanced Subsidiary Level) 자격증을 받게 된다. 즉, AS level은 A level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첫 해에 4개 과목을 공부하고, 이듬해에는 3개의 과목만을 공부하여 총 3개 A level 자격과 1개 AS level 자격으로 졸업한다. 취득한 A level과 AS level 자격의 효력은 영구하여, 수년 후에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경우에도 다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공부하는 과목의 수가 적은만큼, 학생들은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수한 과목이 대학에서 입학할 수 있는 학과와 이후의 취업 분야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수의 과목을 깊이 공부하는 A level 과정은 곧 진로교육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생물과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A level 과정에서 생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총 A level 3개와 AS level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해도 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2) 직업자격증(BTECs(Business Technician Education Certificates), OCR Nationals(Oxford Cambridge and RSA Examinations Nationals))

직업자격 과정은 특정 직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관련 자격과정이다. 예술과 디자인, 비즈니스, 건강과 복지 서비스 등의 많은 과목이 제공되며, 주로 만 16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지만 학교에 따라 만 14-16세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 자격증을 한번 공부하고 자격증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된다. 즉, 더 높은 단계일수록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전문직업자격증(Diploma)(만 14-19세 대상)

전문직업자격 과정은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대학에서 기대되는 주요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전문직업자격 과정이 소개되면서, 일반 학교에서도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직업자격 과정은 일반중등교육자격증이나 A level 과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 두 과정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학생은 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만 산업체 등지에서 좀 더 실용적인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2012년 현재 총 17개의 전문직업자격증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표 3> 참조). 전문직업자격증에는 세 단계가 있으며 각각 2년의 수료 과정이 걸린다(DCSF, 2010).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디플로마(Foundation Diploma)로 성적 D에서 G를 받은 GCSE 5개 과목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그 다음은 중급 디플로마(Higher Diploma)로 성적 A*에서 C를 받은 GCSE 과목 7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상급 디플로마(Advanced Diploma)는 만 16세 이상이 공부하는 과정으로 3.5개의 A level 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

<표 4> 영국의 디플로마 과정

| 과정 개발 | 1차 | 2차 | 3차 | 4차 |
|-------|---|--|------------------------------------|-----------------|
| 과정 | IT 엔지니어링 건설과 건축 사회와 보건 개발 창조와 미디어 | 환경과 토지 관련 과정 제작과 제품 디자인 접대와 케이터링 건강과 미용 사업, 행정, 금융 | 여행과 관광 공공 서비스 소매업 스포츠와 레저 | 인문학 언어 과학 |
| 시작 연도 | 2008년 9월 | 2009년 9월 | 2010년 9월 | 2011년 9월 |

인용: <http://www.employers-guide.org/>

4) 도제 제도(Apprenticeship)

도제 제도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과 업무 수행 기술을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해 익혀가는 제도이다. 자격증의 획득과 함께 임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하는 학생의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며, 연금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만 16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제 제도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은 국가직업자격증(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같은 직업능력자격증 습득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도제 제도는 대체로 1년에서 4년간 진행되나, 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개인의 능력과 참여하는 도제 제도의 종류,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영국 정부는 2013년까지 젊은 계층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도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매년 250,000개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현장직업체험에서의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의 철학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Key Stage 4와 Sixthform 과정 중에 주로 운영되는 현장직업체험 (Work Experience)이다. 현장직업체험은 1-2주간 직업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즉 직업현장의 역할체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업교육과는 별개의 체험학습이지만 학생이 원하는 경우 Young Apprenticeship¹⁰⁾(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50일간의 직업교육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학교와 학생에 따라 Sixthform¹¹⁾ 과정(만 16-18세)에 현장직업체험을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Key Stage 4에서 했던 체험의 연장으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교육부는 매년 약 95%의 Key Stage 4 학생과 약 50%의 Sixthform 과정의 학생이 현장직업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http://www.teachernet.gov.uk>).

영국의 현장직업체험에는 체험을 실시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기 중에 실행하기도 하고 학년 말 여름방학 직전에 실행하기도 한다. 장소 역시 학교 측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가 체험을 원하는 사업체나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분야의 현장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체험기관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10) Young Apprenticeship은 2004년 9월 소개된 Key Stage 4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교실 뿐만 아니라 직업연수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매주 3일간은 이틀씩 국가에서 인증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으며 직업기능 자격증을 목표로 한다.

11) Sixthform은 국내의 고등학교 과정과 유사하며 만 16-18세 사이의 2년간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문계 과정과 전문직업교육 과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생은 부모와 친척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산업체와 회사를 추천받아 연락을 하거나 전화번호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기도 한다. 학생이 체험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산학연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생이 대상 체험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학생이 현장직업체험을 하는 사업체 및 기관의 예를 보면 공장, 유치원, 로펌, 경찰서, 회계사, 특수학교, 대사관 학생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사업체나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로 담당 교원의 조언을 받으며 전문적인 형태로 완성하여 제출한다(진 존스톤(Jean Johnston), 개인 커뮤니케이션). 학생이 지원한 산업체나 회사에 따라 회사 운영진과 면접 과정을 거친 후 체험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체험학습의 운영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모의 취업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마다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역할 체험을 하게 되므로 체험하게 되는 일의 종류와 내용이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던 모 학생의 체험 내용은 <표 5>과 같았다.

<표 5> 영국 학생의 현장직업체험 사례(Licensed Victuallers' School)

| |
|---|
| <p>Ravenswood Mental School (레이븐스우드 특수학교) 체험</p> <p>레이븐스우드 특수학교는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을 위한 학교로 정신질환 환자의 수용시설인 레이븐스우드 하우스(Ravenswood House)의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직업체험은 일주일간 담당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Teaching Assistant)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반 출근과 오후 4시 퇴근으로 교사들의 근무 시간과 유사했다.</p> <p>수업은 학생들의 장애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였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질환이 있으며 시각이 약해져 가는 학생에게는 화려한 빛깔이 있는 사물에 집중을 하게 하거나 독특한 촉감이 있는 사물을 만지게 하여 시각과 촉각을 자극했다. 수영 시간에는 학생의 몸을 받치고 물속을 왕래하면서 학생의 척추를 자극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했다. 신체가 자유로운 학생은 놀이 시간에 커다란 에어매트 위에서 놀 수 있었으며 이때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곁에서 학생을 관리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시간은 요리 시간으로 학습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주방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음식재료를 만져보고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예: 스콘, 샐러드)가 선택되었다.</p> <p>특수학교의 직업체험은 복지 관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깊었다. 막연하게 보람되는 일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직업의 뒤에 숨은 노력과 고충도 이해할 수 있었고 원하던 진로에 대해 더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
|---|

가. 현장직업체험의 운영 체계

이와 같은 현장직업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산학연계가 필요하다.

영국 산학연계의 운영 체계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의 활발한 활동도 찾아볼 수 있다(DCSF, 2009).

1) 학교와 지역사회

가) 교장과 운영위원

교장과 운영위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개발계획(School Development Plan)에서부터 산학연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장과 운영위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교육을 관리하거나, 교육의 질과 환경을 평가할 교사를 지정하고 그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평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업체와 학교와의 연결을 책임지고 있다.

나) 진로담당교사

진로담당교사는 진로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학연계를 위해 주변의 사업체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외부 인물들에게 산학연계를 통한 학습과 관련된 의문 사항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다른 교원들과 함께 기초직업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세우고 교장과 운영위원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도 진로담당교사의 역할이다.

다) 학부모

학부모는 직업체험의 목적과 학교 교육과정의 관계를 이해하고, 산학연계 교육의 직업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학연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라) 사업체

사업체는 산학연계를 통해 학교와 함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한 보건과 안전, 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 영국은 런던 외의 지역에도 비교적 사업체와 일자리가 고루 분포하는 편이며 대기업도 런던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사업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직업학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산학연계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이를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 중 우수한 인력을 발굴할 기회를 갖게 된다.

2)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

학교 밖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단체로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EBPN: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Network)를 들 수 있다.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1998년 처음 전국적으로 조직된 이래, 전국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NEBPN: National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Network)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왔다. 2009년 6월 교육·산업 우수협회(IEBE: Institute for Education Business Excellence)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라는 명칭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2001년 정부 기관인 학습·기술 심의회(LSC: Learning and Skills Council)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로부터 매년 2천 5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2010년 학습·기술 심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 학습 에이전시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활동은 각 지역에 위치한 센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한 부서에 속해 있다. 정부 지원금 또한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10대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된 후, 센터에 지급된다(닉 패리(Nick Parry), 개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활동과 함께 교육과 산업의 연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9년 4월 영국산업연합에서 'Emerging Stronger'라는 제목으로 교육과 산업 분야의 설문을 출간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사업체의 교육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막스 앤 스펜서(Marks and Spencer¹²⁾)의 최고 경영자인 스투어트 로즈(Stuart Rose) 경의 주도로 지역사업체의 '직업 영감(Work Inspiration)'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직업 영감' 캠페인은 기초직업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에서 오는 차이를 해결하고, 학생에게 더욱 의미가 깊도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부모에게도 사업체를 알리게 되는 홍보 효과, 다른 사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학생들 중에 재능 있는 인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의 장점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체들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는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산학연계의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현장직업체험 학습이다. 현장직업체험은 일부 학교 또는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학습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2009-2010년의 통계를 보면 총 526,933명의 학생이 교육·산업 파트너십을 통하여 현장직업체험에 참여하였다. 수행된 직업체험은 참여한 학생의 수보다 많은 531,679건으로 다수의 현장직업체험을 수행한 학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장직업체험 중 절반 이상(55%)이 열흘 이상 진행되는 체험이었다. 현장직업체험을 경험한 학생은 대부분 만 14-15세였고(78.4%), 만 15-16세 학생들은 17.1%에 달하였으며, 만 16세가 넘는 학생들은 4.5%에 달했다. 총 404,999곳의 사업체가 교육·산업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과 비교했을 때, 60,573곳이 증가하였다. 참여한 사업체 중 73.5%는 직원 4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이고 21%는 직원 50명 이상 199명 이하로 대부분이 작은 규모의 사업체였다 (존 윌슨(John Wilson), 개인 커뮤니케이션).

3) 기타 산학연계 지원 기관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 외에도 학생의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는 매우 많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사업체 등 여러 대상에게 직업체험과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에는 전국직업체험협회(NCWE:

12) 막스 앤 스펜서는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다.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서유정)

National Council for Work Experience), Jobcentre Plus, DirectGov 등이 있다. 이 중, 전국직업체험협회는 학생에게 직업체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체험의 질을 높이며, 고용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는 기관이다. 현재 중점을 고교와 대학 과정의 직업체험에 두고 있으나 중학 과정의 직업체험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Jobcentre Plus는 직업·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산하기관으로 영국 내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체의 구인 광고를 받아 지원자와 연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Directgov는 과거 Jobcentre Plus의 온라인상의 활동 중 일부를 맡은 기관으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 모든 공공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기관 외에도 직업체험에 관한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다. 여러 단체들이 있으나, 이 중 전국직업체험협회가 소개하는 단체들은 <표 5>와 같다.

<표 5> 직업체험 관련 단체

| 기관명 | 설명 |
|---|---|
| Animal jobs direct | 동물과 함께 일할 기회와 그와 관련된 정보 제공 |
| Bigwee | 10대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제공 |
| Learn overseas | 의학 혹은 그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려는 만 16-19세의 학생에게 인도의 델리 지역에서의 체험 제공 |
| My Work Experience | 교사, 학교, 고용주, 학생에게 직업체험에 있어 필요한 여러 이슈 (보건, 안전, 직업 교육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제공 |
| Institute for Education Business Excellence |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 제공 |
| Raleigh International | 만 17세 이상의 학생에게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말레이시아, 인디아 등지에서 자원봉사 활동할 기회 제공 |
| The Scheme | 재능있는 12학년 학생에게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체험 기회 제공 |
| Trident Trust | 14-25세를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Skills for life ¹³⁾ ' 과정 운영 |
| The Year In Industry |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A level 학생에게 입학 후 1년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도움 제공 |

인용: <http://www.work-experience.org/>

13) Skills for Life: 성인 문맹을 줄이고 언어와 숫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2001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III. 종합과 시사점

여기서 주목한 영국 진로교육의 특성은 학생의 선택을 반영하는 학생 맞춤형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 교과 과정과 현장직업체험 등에서 학생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학생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교과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부터는 국민공통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학습하는 대부분의 과목이 동일하며, 소수의 과목에서만 선택이 이루어진다. 반면, 영국에서는 학생의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학생의 역량과 흥미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서 일반 교과과목 외에 전문 직업능력 과정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인문계와 직업교육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인문계의 과목과 직업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분야의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학생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학생 본인의 선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이 국내에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바로 밀접한 산학연계를 위한 체계의 마련이다.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계 분야의 과목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과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직업체험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체험을 직접 찾아서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운영은 활성화된 산학연계를 필요로 한다. 영국의 산학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음은 산학연계를 지원하는 학교 차원의 체계와 영국 내 여러 기구들의 조직적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곧 지역 내 조직과 사업체의 교육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영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기부를 꺼리는 사업체가 많지만, 한번 학교와 관계를 맺고 교육기부를 시작하면 다년간 꾸준히 제공하는 사업체도 많다. 막스 앤 스펜서처럼 자체적으

로 산학연계 캠페인을 펼쳐 다른 사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기업도 있다. 단지 봉사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계를 통한 홍보 효과와 우수 인력 발굴, 산학연계에 참여하는 사업체 간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등의 이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내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교육기부를 하고자 하는 산업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창체넷을 운영하고,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목록을 교육청 차원에서 확보함으로써 산학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와 같은 대규모 지원 체계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의 진학진로지원센터와 단위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현장직업체험의 운영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만 14-16세에 해당하는 Key Stage 4 단계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Sixthform 단계에 1주일 이상의 현장직업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의 철학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분야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며, 원하는 직업체험장을 직접 찾도록 장려하고 있다. 학생은 직업체험장을 찾는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현장직업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몇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직업체험장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업체험장을 발굴하여 그 중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체험장을 찾아주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장직업체험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직업체험은 단지 관련 직업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작업을 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직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체험장을 찾는 과정을 통해 모의 취업 준비를 경험하고, 직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감과 직장 예절 등을 깨닫는 등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장직업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직업체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urt, C.(1972). 'Inheritance of general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7, 175-190.
- Brace, C. L.(2005). 'Sir Cyril Burt: Scientific Fraud', In C. Loring Brace (Ed.), *Race is a Four Lettered Word, the Genesis of the Concept*. Oxford University Press.
- DCSF(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Schools and pupils in England*. DCSF Publications.
- DCSF (2009). *The work-related learning guide*. DCSF Publication.
- DCSF (2010). *The Diploma: Bringing Learning to Life*. DCSF Publication.
-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OECD.
- Sampson, A.(1965). *Anatomy of Britain Toda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Labour Force Survey (1993, 2010). *Labour Force Survey*. Retrieved on 14 Feb 2012 from www.ons.gov.uk
-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2011).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Retrieved on 14 Feb 2012 from data.gov.uk

<개인 커뮤니케이션 - 인터뷰>

- Johnstone, Jean. Licensed Victuallers' School의 진로담당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선택 및 지원 과정과 체험 사례.
- Parry, Nick. Department for Education. 영국 직업체험의 배경과 역사, 담당 부처의 변화.
- Wilson, John. Young People's Learning Agency의 Senior Policy Manager. 교육 사업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의 성과.